악랄한 브로커·무관심 지자체…이주노동자 피멍든다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이주인권 증언대회 들어보니

임금 착취·여권·통장 압류·담보물 설정…이동 제한까지
근로 현장 구조 이해하고 문제 많은 고용허가제 고쳐야

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브로커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며 이동을 좌지우지하는 등 이른바 '인신매매' 피해도 잇따른다는 주장이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2일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에는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나서 '전남지역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실태-왜 없어지지 않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브로커의 임금 중간착취, 여권·통장 압류, 담보물 설정 등 인신매매적 행위가 다수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전남도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고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 사례를 인용하며 근로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실태와 신분증·통장 압류, 과도한 귀국보증금 요구 등 구조적 착취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계절노동자 임금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

고흥에서는 월 100만원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액 착취한 사례도 있으며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계절노동자를 타 지역으로 임의로 배정하고 임금을 체불한 장흥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브로커들의 행위가 명백한 인신매매"리며 "경찰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도 이주인권 정책개선'에 대해 제언했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 A(37)씨는 이날 부당해고 피해자로 나서 증언했다.

A씨는 "한국에 와서 5개월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출신 브로커가 오면서 삶이 바뀌었다. 쉬는날도 밖에 나가려면 보고하고 가야하고, 말 안들으면 본국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청에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지만 고용부에서도 우리가 회사랑 협의를 했다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광주민중의집 김춘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전남의 이민정책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빗속 전조등 켜고 12일 오후 갑자기 내린 폭우에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쌀 수확 코앞인데…정부 비축미 3만t 방출 웬말이냐"

전남 농민단체 "쌀값 하락 부추기는 부정적 신호" 반발

정부가 쌀 수확기에 수급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 3만 t 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로 '방출' 키로 결정하면서 전남 쌀 재배 농가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햅쌀(조생종) 수확이 시작된 상황에서 비축미를 풀면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농민들 우려다. 농자재값 비용 상승 등 생산비는 끝없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값도 적정가에 못 미친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전남도도 농민 불안감을 감안, 정부 양곡 방출이 2023년산 쌀 수확기 쌀값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농 광전연맹과 쌀협회 광주전남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쌀값 잡는 수확기 3만 t 방출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내세워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 3만 t (정곡 기준)을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000t(정곡 기준) 이상인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다.

지난해 쌀 생산량(359만 t)이 전년 대비 12만 t 줄어든데다, 시장 격리 규모(공공비축미 40만 t , 시장격리 20만 t , 벼멸구 등 피해 벼 매입2 t)가 커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원료곡이 부족해 유통업체의 비축미 방출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산지 쌀값(80kg)은 지난 5일 기준 21만 1600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21만 222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21만원대로 올라섰다.

쌀값은 지난 6월 처음으로 20만원(20만 1680원·6월 15일 기준)을 넘어섰고 상승세를 유지면서 21만원대까지 올라섰다. 또 매년 수확기(10~12월)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햅쌀 수확 전인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 통상적 쌀값 추이를 고려하면 쌀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축미 풀기'는 시장에 '쌀값을 떨어트리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농민들은 "24년산 쌀을 방출하고 25년산 쌀을 사들이면 수급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수급안정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쌀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쌀값 하락 대책이라는 것으로,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재 쌀값도 농민들이 요구한 밥 한공기(100 g) 3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가격이며 2018년 쌀목표가격 21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이 된 뒤 양곡관리법에서 공정가격을 폐기한 것도 무관하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역대 급 폭염과 폭우를 이기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내놓는 게 정부양곡 방출이라니 배신감에 치를 떤다"고 분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전남 오락가락 비 끝나면 다시 폭염

광주·전남지역은 14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다 멈춘 뒤 다시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까지 광주·전남에 20~80㎜의 비가, 전남해안에는 10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4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져 폭염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내륙은 33도 이상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에 분포하고, 14일은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서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일 오후 5시 기준 영암, 보성, 장흥, 강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하루 완도 보길도에는 139.5㎜, 고흥 도화 113㎜, 여수 소리도 107.5㎜, 장흥 관산 89.5㎜, 신안 하태도 86㎜, 강진 성전 77.5㎜의 비가 내렸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